

장용학과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실존주의 수용 양상

The Aspects of Accepting Existentialism in the Novels by Chang Yong-hak and Son Chang-sub

음 영 철
삼육대학교

Eum yeong-cheol
Sahmyoo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장용학과 손창섭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된 바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용학의 〈요한 詩集〉은 ‘자유’의 의미가 ‘성실한 삶’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쉘러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창섭의 〈미해결의 장〉은 ‘광순’이를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한다는 측면에서 까뮈의 영향이 간접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I. 서론

실존주의는 개인이 사회의 심각한 동요 속에 놓일 때 누구에게나 오직 확실한 존재는 ‘자아’이므로, 그 시점에서 스스로 자아를 설정하고 자기주장을 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러한 실존사상이 1930년 및 40년대에 있어서 많은 지성인들에게 깊이 스며든 것은 당대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시대는 유럽의 정치적 여건이 급변하였고, 그로 인해 위기의식이 커졌던 것이다. 정명환에 따르면 실존주의는 인간의 존재를 가장 험악한 존재로 본다는 점, 필연적인 존재 이유가 없다는 점, 구원을 위한 행위자로서의 인간을 제시한 점, 이 세 가지로 모아진다 [1].

한국에 실존주의가 유입된 시기는 1930년대 초기라 할 수 있다. 1934년에는 하이데거가 소개되었으며, 앙드레 지드에 대한 평론이 〈신동아〉를 통해 발표되었다.[2] 그러나 단편적인 소개 수준이었다. 해방후 실존주의 문학의 수용은 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로 1948년 이후에 본격화되었으며 내용도 시사적이고 계몽적 수준에 머물렀다.

한국에서 실존주의 문학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한국 전쟁이 끝난 뒤인 1955년 전후로 등장한 일군의 소설가들 때문이었다. 장용학, 손창섭, 오상원, 이범선, 김성한 등이 문단에서 활동하면서 실존주의 문학은 유행병처럼 퍼졌다. 한마디로 한국에서의 실존주의 문학은 한국 전쟁의 극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탄생하였으며, 인간 옹호의 휴머니즘적 성격이 강하다.

본고에서는 장용학과 손창섭을 중심으로 서구의 실존주의 문학이 한국에 수용된 양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물론 서구와 다른 한국의 50년대 실존주의 소설을 쉘러와 까뮈의 방법론을 적용해서 고찰할 이유는 없다.

그럼에도 이들 작가들을 포함하여 50년대 작가들이 쉘러와 까뮈의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구의 실존사상이 이들 두 작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고찰함으로써 50년대 문학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II. 본론

1. 장용학 소설에 나타난 쉘러 수용 양상

난해한 작가로 알려진 장용학은 과거와의 문학적 단절을 보이는 작품들을 창작했다. 그의 소설들은 작가 스스로 밝혔듯이 쉘러의 실존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3].

장용학의 〈요한 詩集〉에 나타난 주제는 자유이다. 장용학은 관습적 사고에 대한 역설적 전복의 전략으로 작품 곳곳에 자유의 의미가 드러나 있다. 소설 첫머리에 제시된 토기의 우화에서 보면, 굴 밖으로 나온 토기는 태양 광선 때문에 죽게 되고 그 자리에 ‘자유’의 버섯이 돌아난다. 또한 누혜의 극단적 인식인 “자살은 하나의 시도요, 나의 마지막 기대이다. 거기에서도 나를 보지 못한다면 나의 죽음은 소용없는 것이 될 것이고, 그런 소용없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생이라면 나는 차라리 한시 바빠 그 전신을 과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에서도 자살을 통한 자유의 회구가 나온다. 그러나 무의미한 삶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은 쉘러의 〈구토〉에 나오는 자유의 의미와는 다르다. 왜냐하면 작중인물인 로깅은 자살이 아닌 예술창조를 통해 구원의 가능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작품의 마지막에 누혜의 죽음을 통하여 ‘자유’의 의미를 밝히고 동호의 탄생한 과정을 그린 것은 실존 사상의

문학적 형상화라 할 수 있다. 동호의 “내일 아침이 올지 말지 하더라도 끝난 오늘은 끝난 오늘로서 아주 결단을 내 버려야 한다. 우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 진리를 찾는다고 애매한 제스처를 부러서는 안 된다.”는 의식은 싸르트르가 그토록 혐오했던 ‘자기기만’에서 동호가 벗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는 전후의 한국인이 한국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존재를 규정하는 성실한 선택적 삶이 인간 본질에 선행해야 함을 밝히는 것이기도 하다.

2.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까뮈의 수용 양상

손창섭은 50년대 작가들에게서 흔히 지적되는 성찰부재 혹은 체험의 압도성에서 벗어난 예외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여지없이 무너진 현실에서 그 신뢰를 오히려 짓밟음으로써 현실적으로 그것을 회복하려 했던 그의 문학적 방식은 50년대의 허무주의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예컨대 그의 소설 속의 인물들은 비정상적인 성격의 소유자이거나 신체장애자로 등장한다. 권영민은 그의 소설에 나타난 인간의 불구성이 인간 자체의 결합에서 온 것이 아니라 전후 현실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았다⁴⁾. 이러한 면모는 그의 소설 〈미해결의 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작중 주인공인 ‘나’는 저녁 때가 되어 집에 돌아와서는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다. 그나마 집안의 생계를 유지했던 유일한 재봉틀이 빛 때문에 뺏기고 만 것이다. 이들 가족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 없어졌을 때, 이들 가족의 운명은 생계가 아득한 자신의 집에서 기식하고 있는 친척 처녀의 매춘을 통해 해결된다. 생존 자체를 위해 그 사회의 윤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손창섭은 자신을 ‘38따라지’라고 표현하였으며 그의 피난민 세계관은 자신의 작품 곳곳에 스며있다. 또한 그의 작품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소재인 ‘가난’은 그의 소설의 주인공들이 직면하는 동물적 상태의 한계상황과 허무의식을 잘 보여준다. 그의 작품들의 주제는 인간이 정신적 존재 이전에 물질적 존재라는 것이다. 까뮈에게 있어 부조리란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세계의 비합리성 사이에서 빚어지는 모순의 감정을 뜻한다. 죽음에 대한 절망과 삶에 대한 환희처럼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모순된 채로 있어서 무엇이 본질인지를 규정할 수 없는 세계에 대한 깨달음은 ‘줄고 있는 의식’의 개명을 통해 부조리를 인식하게 된다. 그 순간에 인간은 실존하게 되고 그러한 부조리의 인식, 바로 이것이 인간 존엄성의 근거라 할 수 있다.

친척 처녀인 광순이를 취직(매춘업)시켜 주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낯선 청년들로부터 구타를 당하면서 ‘광순’이를 부른다. 광순이는 어떤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인물이다. 까뮈는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부조리 자체를 받아들여 전폭적으로 긍정하는 태도를 반항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광순이는 50년대 선악의 경계가 불분명한

부조리한 세계를 침묵의 언어인 ‘웃음’으로 반항한 인물로 볼 수 있다. 손창섭은 1950년대의 전후사회를 소설로 다루면서, 생존의 문제가 모든 이들의 관심사였으며, 사회모순이 사라지기까지 냉담 심화되고 있음을 소설을 통해 묘사한 작가이다. 손창섭은 이러한 모순을 내면화하기 위해 까뮈에게서 그 해답을 찾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의 부조리를 적극 개선하고자 했던 싸르트르와 달리 모순으로 가득찬 현실을 긍정했던 까뮈에 가까웠던 손창섭은 작가 특유의 허무주의로 인해 실존주의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예외적 인물인 ‘광순’이와 그의 대표작인 〈영여인간〉의 서만기에서 볼 수 있듯이 까뮈와의 연관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Ⅲ. 결론

문예사조로서의 실존주의는 1950년대 한국작가들에게 특징적 면모로 나타난다. 본고에서는 장용학과 손창섭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된 바 얻어진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장용학의 〈요한 詩集〉은 ‘자유’의 의미가 ‘성실한 삶’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싸르트르의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손창섭의 〈미해결의 장〉은 ‘광순’이를 통해 부조리한 현실을 고발한다는 측면에서 까뮈의 영향이 간접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

- [1] 정명환, 實存主義와 文學, 정명환 외, 20世紀 이데올로기와 문학사상, 서울대학교 출판부, p.35, 1979.
- [2] 이대영, 한국전후실존주의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pp.37-38, 1998.
- [3] 장용학, 韓國戰後問題作品集, 신구문화사, P.400, 1964.
- [4]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민음사, P.155, 1993.